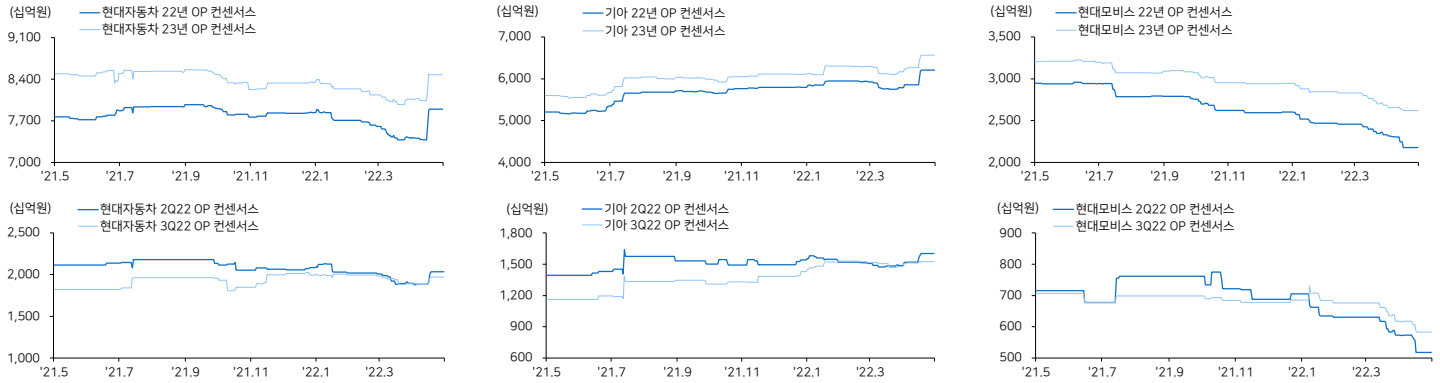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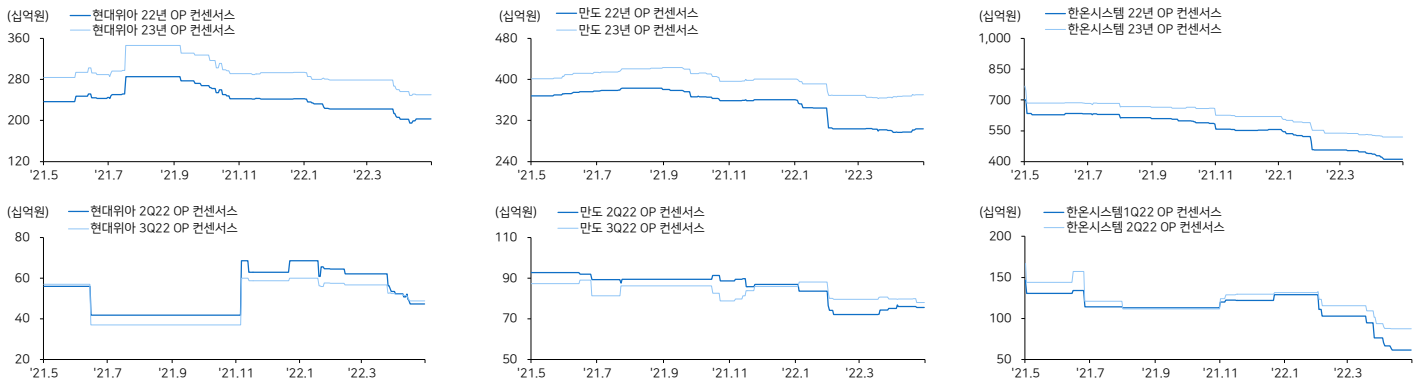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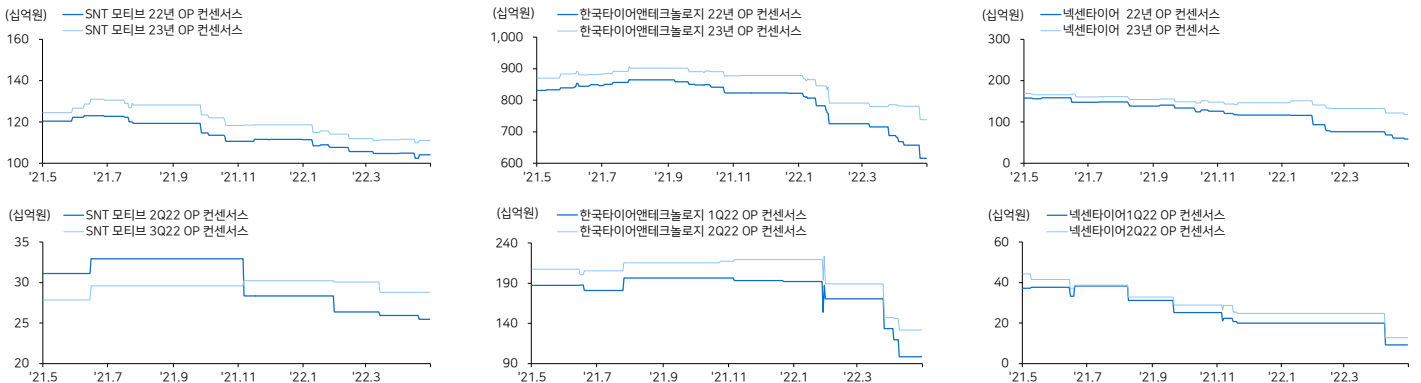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인텔·IBM과 특허 라이선스 체결...정외선식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THE GURU)

현대자동차가 미국 기술기업 'IBM'에 이어 최대 반도체 기업 '인텔'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UAV, 언어처리, 자동 인식 기술 등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음. 자율주행·로보틱스 등 전방위적인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것.
<https://bit.ly/3LyjoyN>

현대위아, 자율주행 물류로봇 첫선 (한국경제)

현대위아가 협동로봇, 자율주행 물류로봇 처음 공개함.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HMGICS에 이 로봇을 기반으로 스마트 제조·물류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함. 업계에서는 현대차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현대위아의 로봇과 물류로봇이 쓰일 것으로 예상.
<https://bit.ly/3NwHkdW>

Tesla plans to ramp up to pre-lockdown output in Shanghai by Tuesday (Reuters)

Tesla는 기존 예정보다 하루 늦춰진 오늘부터 일일생산량 2,600대로 가동할 것으로 알려짐. 월요일 생산량은 1,000대였으며, 주간 생산량은 약 16,000대가 될 것으로 알려짐. Tesla는 이에 관해 언급하지 않음.
<https://reut.rs/3GfMQc6>

DHL exec says China lockdowns will hit supply chains more than Ukraine war (Reuters)

DHL 그룹 화물사업 책임자는 중국 락다운이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글로벌 공급망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락다운 해제 이후에도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함. 무역시스템의 정상화에 예상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함.
<https://reut.rs/3JlaAS>

"지금이 가장 싸다" 반도체 수급난에 글로벌 수급 천정부지 (아시아경제)

고객이 차량을 주문해도 1~2년씩 기다려야 하는 '공급자 우위' 상황이 지속되면서 완성차업체들은 너나 할 것없이 가격 인상에 동참 중. 공급망 이슈는 차량의 전동화/SW 전환 등 자동차산업 지형도를 뒤바꿀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됨.
<https://bit.ly/3wCITMn>

LG엔솔 vs. 파나소닉...테슬라 차세대 배터리 두고 한일전 (THE ELEC)

일본 파나소닉은 4680 규격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위해 배터리를 사업 분사를 검토 중이며, LG에너지솔루션은 연내 4680 규격 원통형 배터리 파이프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시험생산에 들어갈 예정.
<https://bit.ly/3wzBrR5>

Stellantis, Samsung SDI to build new JV battery plant in Indiana (Reuters)

스텔란티스는 화요일 삼성SDI와 인디애나 주에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 양사는 지난 10월 북미 리튬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투자사 설립을 발표했으며, 해당 공장은 2025년 가동, 연간 23GWh 생산능력을 계획 중.
<https://reut.rs/3sRjTxl>

Average age of U.S. cars hits record high due to tight supplies, report says (Reuters)

S&P Global은 미국에서 운행 중인 Light Vehicle의 평균 연령이 12.2년으로 전년대비 2개월 증가했다고 밝힘. 부품 부족으로 신차 생산 및 공급망이 계속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 자동차 평균 연령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https://reut.rs/3MI3PGk>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